

#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에 대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 및 지연효과 분석

정정교\* · 정혜원\*\*

## Ⅰ 알기 쉬운 개요

중학생의 행복감은 중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동안 행복감의 변화 양상과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행복감의 수준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해당 학년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해당 학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학년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시기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와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이후 학년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mail714@naver.com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투 고 일 / 2023. 5. 22.  
심 사 일 / 2023. 8. 24.  
심사완료일 / 2023. 8. 24.

## Ⅰ 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의 중1 패널 1차년도~3차년도(중1~중3)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3년간의 행복감 변화 양상과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1차(중1)~3차(중3) 시점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중1) 시점의 부모지지는 2차(중2), 3차(중3) 시점의 행복감에, 2차(중2) 시점의 부모지지는 3차(중3)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1차(중1) 시점의 친구지지는 2차(중2), 3차(중3)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지연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 친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로 장기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중단연구를 수행할 필요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행복감, 사회적 지지, 잠재성장모형, 동시효과, 지연효과

## I. 서 론

행복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hahar, 2007). 이러한 행복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삶에 있어 행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명수정, 강승호, 2011).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인간발달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김영희, 고태순, 2014).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8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2019). 또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행복감은 전 생애에 걸쳐 추구되는 발달과제로 특히, 청소년기의 행복감 형성은 이후 성인기, 노년기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선아, 2012; 이경님, 2021;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청소년기의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이 앞으로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감이 단순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학생의 행복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민경, 조현경과 김재철(2021)의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강만식과 이선화(2022)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림과 이지민(2018)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usitalo-Malmivaara(2014)는 14세부터 16세까지 핀란드 학생들의 전체 행복감과 학교 관련 행복감이 모두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희(2020)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병선(201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화, 봉초운과 홍세희(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3학년까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고등학생과 달리 자아가 미성숙하여 불안정한 시기이며, 초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다(권은경, 2020; 김영희, 고태순, 2014).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쟁이나 좌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감이 낮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강영하, 2012; 권세원, 송인한, 2011). 학업 스트레스가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선아, 2020)를 보았을 때, 학업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어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인 중학생의 행복감에 주목해야 하며,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이 앞으로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 시점의 행복감이 아닌 중학교 시기 동안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 시기의 행복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감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요인과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 중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보정, 2003; Piko & Hamvai, 2010).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받는 긍정적인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김선자, 조옥귀, 2003). 청소년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미숙, 2014).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신혜영, 김지현, 2016). 중학생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장소는 가정과 학교이다(송호관, 2022). 중학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업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친구,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학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모지지와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2)의 연구는 부모관계가 행복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친구,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20)는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용준과 윤현정(2020)는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예지(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일 시점에서 측정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탐색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패널자료가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시간의존변수(time varying covariates)로 간주하여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 구체적으로 모화숙과 박소영(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지연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은서와 정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그릇 변화궤적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홍국진, 이은주(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부모지지, 교사지지의 지연효과가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변수로 설정하여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의 변인 간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반복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행복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선행연구(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를 참고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영향력이 이후 시점에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연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행복감

행복을 나타내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행복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적·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한혜림, 이지민, 2018).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00)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행복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와 같은 행복은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긍정 정서에 초점을 두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행복은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로 정의한다(Diener, Lucas & Oishi, 2002). 즉,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등을 통해 느끼는 정적인 정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eligman, 2002). 둘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독특한 자존을 탐색하여 발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Diener, Lucas & Oishi, 2002). 즉 자기실현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이룸으로써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Maslow, 1971).

중학생에게 있어 행복감은 앞으로의 생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중학생의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혜림과 이지민(2018)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학업성취가치가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강만식과 이선화(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의 변화율을 확인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행복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이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민경 외(202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궤적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감소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3개의 잠재계층 모두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usitalo-Malmivaara(2014)의 연구에서는 14세부터 16세까지 학생들의 행복감이 감소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성공, 이성친구 유무, 친구관계, 가정의 평화 등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화 외(2018)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중학생 시기에서는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형태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성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행복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동시효과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에 대해 박은성(2010)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총체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건강한 발달과 적응 및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Salami, 2010). 성인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제공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은 가정과 학교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원은 주로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친구, 교사이다(송호관, 2022).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소속감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안과 긴장에 대처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 중 애착은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로 청소년은 이러한 관계를 주로 부모, 친구, 교사와 형성한다(김준호 외, 2009).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탐색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장은아와 정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손수경(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의 사회적 지지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청소년 지도자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현수, 김도우와 이재영(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비행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로 구분하였다. 안혜진과 정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해 탐구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중학생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중학생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이 중학생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2)의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숙(2016)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20)의 연구는 친구관계에 있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행복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현성과 김진미(2014)의 연구는 부모관계,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경미와 김동원(2019)의 연구는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요인으로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숙연과 조규판(2016)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요인 중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예지(2022)의 연구는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roiland, Worrell과 Oh(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점에만 한정되어 진행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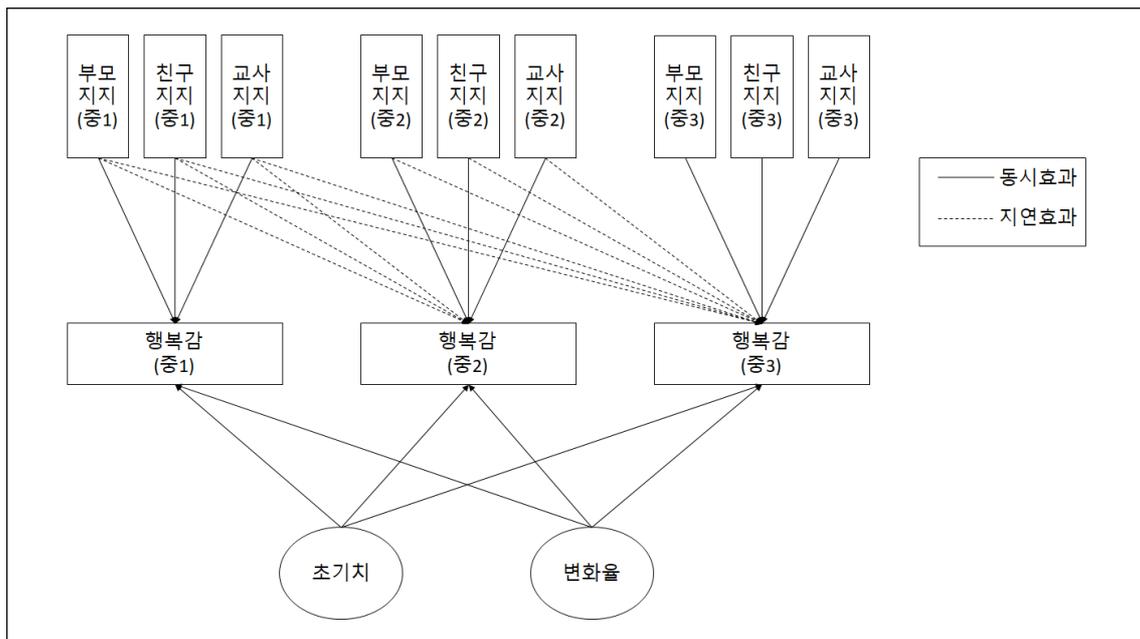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표본은 전국 중학교 1학년 재학생(2018년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추출법으로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중1)~3차년도(중3)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2,590명 중 2, 3차년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265명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총 2,325명으로 남학생 1,248명(53.7%), 여학생 1,077명(46.3%)이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시점에 따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3년간의 중학생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 및 지연효과를 살펴보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은 1차~3차년도(중1~중3)의 행복감으로 KCYPS 2018 자료의 개인발달 중 행복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행복감 변인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원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한 이정림 외(2015)의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번째 문항은 불행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응답은 2문항에서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1점~'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4점을 척도로, 2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을 척도로 하여 측정되었으며, 행복감의 문항과 시점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영향변인은 1차년도(중1)~3차년도(중3)의 사회적 지지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활용하였다. 부모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양육태도를 활용하였다. 양육태도 변인은 Skinner와 Snyder(2005)의 부모양육태도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며, 하위요인으로 따스함 4문항, 자율성지지 4문항, 구조제공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친구관계를 활용하였다. 친구관계 변인은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연구에서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긍정적 친구관계 8문항과 부정적

친구관계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친구관계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교사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교사관계를 활용하였다. 교사관계 변인은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며, 하위요인으로 접근가능성 3문항, 민감성 4문항, 신뢰성 4문항, 수용성 3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변인의 문항과 시점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측정도구		문항	시점별 신뢰도	
종속 변인	행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li> <li>•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li> <li>•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매우 그렇다.</li> <li>•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매우 그렇다.</li> </ul>	1차(중1): .794 2차(중2): .761 3차(중3): .728	
영향 변인	부모 지지	따스함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외 3문항	1차(중1): .918 2차(중2): .906 3차(중3): .900
		자율성 지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외 3문항	
		구조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외 3문항	
	친구 지지	긍정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외 7문항	1차(중1): .852 2차(중2): .854 3차(중3): .826
		부정적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외 4문항	
	교사 지지	접근 가능성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외 2문항	1차(중1): .913 2차(중2): .906 3차(중3): .899
		민감성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외 3문항	
		신뢰성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외 3문항	
수용성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외 2문항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의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측정변인인 행복감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무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 중학교 3년간(중1~중3)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개인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동일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동시효과와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다음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지연효과를 탐색하고,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모형에 해당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시간의존변수로 설정하여 동일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TLI,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 이상은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SRMR은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5~.80은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10 이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18;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24.0과 Mplus 8.4(Muthen & Muthen, 1998-2019)를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인과 영향변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학생 3년간의 시점별 행복감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1차년도(중1)에 3.131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중2) 3.065, 3차년도(중3) 3.055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검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 값이 최소 -.370에서 최대 .043로 나타났으며, 첨도 값은 최소 -.252에서 최대 1.817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6).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행복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1차 ①	2차 ②	3차 ③	1차 ④	2차 ⑤	3차 ⑥	1차 ⑦	2차 ⑧	3차 ⑨	1차 ⑩	2차 ⑪	3차 ⑫
①												
②	.435***											
③	.371***	.453***										
④	.504***	.295***	.259***									
⑤	.277***	.491***	.287***	.399***								
⑥	.238***	.288***	.425***	.352***	.407***							
⑦	.421***	.268***	.221***	.397***	.207***	.205***						
⑧	.249***	.458***	.236***	.244***	.488***	.222***	.391***					
⑨	.215***	.254***	.419***	.198***	.208***	.389***	.306***	.403***				
⑩	.361***	.192***	.172***	.440***	.186***	.168***	.391***	.192***	.160***			
⑪	.221***	.339***	.176***	.224***	.445***	.210***	.212***	.383***	.181***	.338***		
⑫	.166***	.159***	.292***	.187***	.176***	.391***	.187***	.169***	.304***	.300***	.334***	
M	3.131	3.065	3.055	3.262	3.153	3.156	3.126	3.110	3.106	2.802	2.757	2.782
SD	.545	.475	.455	.485	.470	.449	.432	.426	.390	.500	.477	.442
왜도	-.327	.043	-.097	-.353	-.162	-.167	-.118	.017	-.026	-.143	-.172	-.370
첨도	.299	.450	.998	-.191	-.083	.315	.325	-.252	.247	1.013	1.158	1.817

\*\*\*  
 $p < .001$

## 2. 행복감의 변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모형의 적합도는  $\chi^2=9.516^{**}$  ( $df=1, p<.01$ ), TLI=.977, CFI=.992, RMSEA=.061(.030~.098), SRMR=.015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냈다.

행복감의 초기치는 3.119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은 -.03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행복감을 평균 3.119로 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의 평균이 .036만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간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나타낸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무조건모형의 평균과 분산

변인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행복감	3.119 <sup>***</sup>	.132 <sup>***</sup>	-.036 <sup>***</sup>	.013 <sup>**</sup>

\*\*  $p<.01$ , \*\*\*  $p<.001$

## 3.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 및 지연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가 각 시점별로 동일한지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제약 모형과 동시효과의 동일성, 동시·지연효과의 동일성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차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각 시점별로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상이함을 가정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동등성 검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 동등성 검증 결과

통계치		$\chi^2$	df	CFI	RMSEA	$\Delta \chi^2$	$\Delta df$	$\Delta CFI$	$\Delta RMSEA$
무제약		43.316	10	0.990	0.038				
제약	동시효과	124.147	16	0.966	0.054	80.831 ***	6	-0.024	0.016
	동시+지연효과	130.167	22	0.966	0.046	86.851 ***	12	-0.024	0.008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행복감에 시간의존변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영향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해당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43.316^{***}$  ( $df=10$ ,  $p<.001$ ), TLI=.969, CFI=.990, RMSEA=.038 (.027~.050), SRMR=.021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시간의존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동시 및 지연 시점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동일한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변화에 따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행복감에 대하여 동일한 시점의 부모지지 ( $\beta=.362$ ,  $p<.001$ ), 친구지지( $\beta=.232$ ,  $p<.001$ ), 교사지지( $\beta=.109$ ,  $p<.001$ )는 행복감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부모지지( $\beta=.282$ ,  $p<.001$ ), 친구지지( $\beta=.234$ ,  $p<.001$ ), 교사지지( $\beta=.077$ ,  $p<.001$ )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부모지지( $\beta=.196$ ,  $p<.001$ ), 친구지지( $\beta=.250$ ,  $p<.001$ ), 교사지지( $\beta=.102$ ,  $p<.001$ )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즉,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을 높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에서 다음 시점에 나타내는 영향력의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지각하는 부모지지( $\beta=.081$ ,  $p<.001$ )와 친구지지( $\beta=.073$ ,  $p<.001$ )가 2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 시점의 부모지지( $\beta=.068$ ,  $p<.01$ )와 친구지지( $\beta=.042$ ,  $p<.05$ )는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점의 부모지지( $\beta=.104, p<.001$ )는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학년 시점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2학년과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학년 시점의 부모지지가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교사지지는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효과와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전체 학년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유의했으며 1학년의 친구지지가 2, 3학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지지는 동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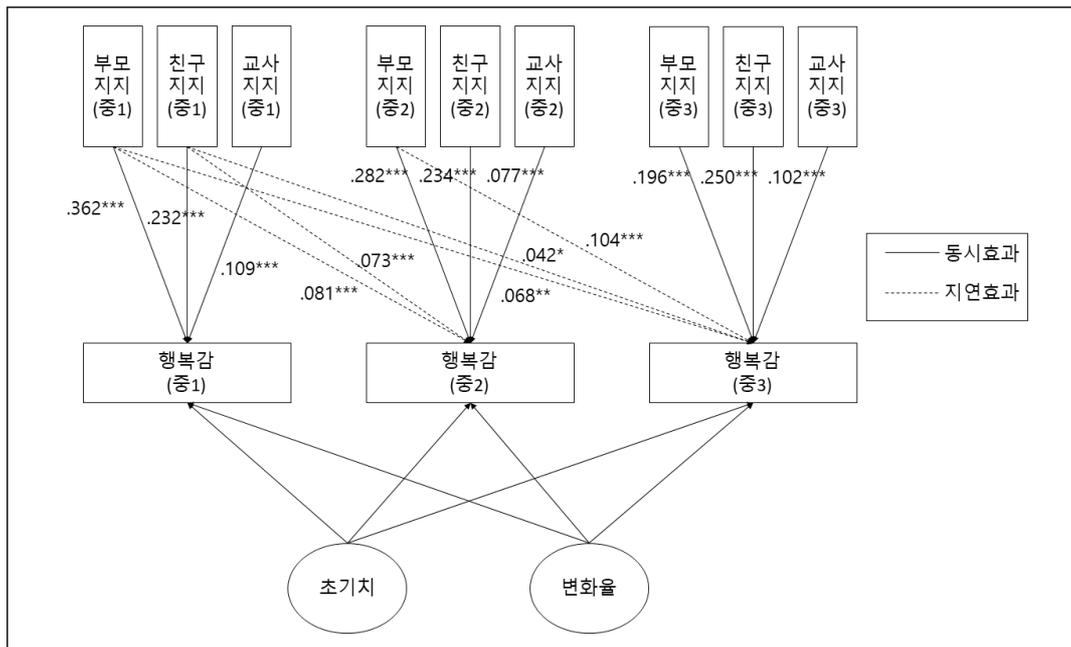


그림 2. 행복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표시하지 않음)

표 5  
조건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비고
1차 부모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406 ***	.362	.019	
1차 친구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292 ***	.232	.019	동시효과
1차 교사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119 ***	.109	.020	
2차 부모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283 ***	.282	.021	
2차 친구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260 ***	.234	.020	동시효과
2차 교사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076 ***	.077	.019	
3차 부모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195 ***	.196	.021	
3차 친구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288 ***	.250	.019	동시효과
3차 교사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103 ***	.102	.019	
1차 부모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79 ***	.081	.021	
1차 친구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79 ***	.073	.020	지연효과
1차 교사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10	.010	.020	
1차 부모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63 **	.068	.022	
1차 친구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58 *	.042	.021	지연효과
1차 교사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14	.016	.022	
2차 부모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099 ***	.104	.023	
2차 친구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014	-.013	.022	지연효과
2차 교사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027	-.028	.021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를 부모 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비롯하여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한 결과,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변화추세를 보인다는 이전의 선행연구(강만식, 이선화, 2022; 서민경 외, 2021; 한혜림, 이지민,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김미희, 2020; 박병선, 2019)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상급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만족할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할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쟁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행복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학업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행복감의 감소 폭이 더욱 커져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시효과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전체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지연효과는 지지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중1 시점의 부모지지가 중2, 중3 시점의 행복감에, 중2 시점의 부모지지가 중3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선아, 2012; 명수정, 강승호,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 전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 중학생의 행복감 향상에 부모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학생 시기에 형성된 행복감이 성년기, 노년기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가 수용적 태도로 양육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행복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Toraman, Aktan & Korkmaz, 2022)에서 중학생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학생이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지지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구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지지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용준, 윤현정, 2020; 정경미, 김동원, 2019; 정예지, 2022; Uusitalo-Malmivaara,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시기의 친구관계는 행복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양한 조별 활동이나 팀별 학습을 통해 친구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감의 감소에 친구와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친구관계에 있어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중학교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관계를 해결하여 행복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지지가 중학교 1학년 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2, 3학년 시기의 행복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관계에 더욱 신경 써 친구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친구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시점의 교사지지가 다음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지지가 행복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숙연, 조규판, 2016; 정예지, 2022; Froiland 외, 201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중학교 시기의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 설계와 실행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에 교사지지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지연효과를 보인 선행연구(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와 달리 행복감에 미치는 교사지지의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교사와 맺는 관계의 질이 낮아지며 교사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가 동일시점의 학생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시점에 학생이 인식한 교사관계가 이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행한 연구의 연구대상과 관심변인에 따라 교사지지의 지연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은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모두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교사지지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검증을 통해 중학생의 행복감 발달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동일시점의 행복감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변화에 따른 지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행복감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탐색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 중학교 이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복감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중 일부 지지가 특정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모두 영향변인으로 투입하여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이후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중학생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연구하였으나 행복감이 중학교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적인 종단자료를 축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행복감 변화와 그 요인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영향변인으로 투입하여 동시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에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변인을 선정한 후 한정적인 변인을 투입하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연구(김길재, 박강윤, 문명현, 2023; 장은아, 정혜원, 2023)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더욱 다양하게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 따른 행복감의 장기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행복감의 속성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식, 이선화 (2022). 청소년의 행복감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3(4), 1-13.
- 강영하 (2012). 행복 연구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25(2), 1-21.
- 교육부 (2019).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권세원, 송인한 (2011).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가지는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67-92.
- 권용준, 윤현정 (2020).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31(1), 183-210. doi:10.14816/sky.2020.31.1.183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doi:10.14400/JDC.2020.18.11.123
- 김길재, 박강윤, 문명현(2023).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청소년의 비행 예측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30(5), 267-290. doi:10.21509/KJYS.2023.05.30.5.267
- 김미희 (2020).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한 학교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247-272. doi:10.17997/SWRY.65.1.9
- 김보정 (2003).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선아 (2020). 남녀청소년의 다양한 스트레스(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제),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감의 관계성 연구: 매개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9), 161-169. doi:10.5762/KAIS.2020.21.9.161
- 김선자, 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숙연, 조규판 (2016). 중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 심리적 성장환경, 사회적 지지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259-279.

- 김영희, 고태순 (2014). 중학생의 희망 및 공감과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330-338. doi:10.5392/JKCA.2014.14.10.330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교육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 **한국교육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31.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2009). **청소년비행론** (2판). 서울: 청목출판사.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현숙 (2016).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5, 113-141.
- 명수정, 강승호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24(3), 619-643.
- 모화숙, 박소영 (2022). 중학생 협동역량의 발달궤적과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 관계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교원교육**, 38(6), 393-412.
- 박병선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 분석. **인문사회21**, 10(1), 1121-1132. doi:10.22143/HSS21.10.1.78
- 박은성 (2010).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지지 내용 분석. **초등교육학연구**, 17(2), 65-88.
-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 (20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6(1), 59-92.
- 배병렬 (2018).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백미숙 (2014).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민경, 조현경, 김재철 (2021). 중학생의 학교행복감 변화궤적과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8(1), 391-416. doi:10.21509/KJYS.2021.01.28.1.391

- 손수경 (2022).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3), 77-102. doi:10.14816/sky.2022.33.3.77
- 송호관 (2022). 사회적 지지를 통한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기인식 탐색: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론 활용. **초등교육연구**, 35(1), 77-100.
- 신혜영, 김지현 (2016).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및 교사와의 갈등관계 유형에 따른 초등 학교 아동의 행복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5(5), 545-558.
- 안혜진, 정미경 (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9-303.
-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24(3), 89-100.
- 염유식, 김경미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 이경님 (2021).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25-949.
- 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감. **교육사회학연구**, 26(1), 121-154. doi:10.32465/ksocio.2016.26.1.006
- 이은서, 정혜원 (2022). 초등학생의 그릿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의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60(4), 147-176.
- 이정립,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보고 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임혜립, 김서현, 정익중 (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교급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 doi:10.20970/kasw.2018.70.2.006
- 장은아, 정혜원 (202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0(5), 81-111.
- 장은아, 정혜원 (2023).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 적용. **교육학연구**, 61(1), 31-63. doi:10.30916/KER A.61.1.31
- 정경미, 김동원 (2019).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 격려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1), 73-91. doi:10.35185/KJET.11.1.4

- 정예지 (2022).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수준, 스트레스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31(3), 179-198.
- 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doi:10.21509/KJYS.2018.01.25.1.181
- 차현성, 김진미 (2014). 중학생이 느끼는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탐색. **한국교육**, 41(4), 103-122. doi:10.22804/jke.2014.41.4.005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림, 이지민 (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03-117. doi:10.7466/JKHMA.2018.36.1.103
- 홍국진, 이은주 (2018). 청소년기 학습무동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 교사, 또래 관계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207-227. doi:10.22327/kei.2018.36.4.20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10.1111/j.1559-1816.1983.tb02325.x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 Froiland, J. M., Worrell, F. C., & Oh, H. (2019).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happiness among diverse students. *Psychol Schs*, 56, 856-870. doi:10.1002/pits.22245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slow, A. (1971). *The fa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NY: Harper & Row.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9).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Piko, B. F.,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ion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doi:10.1016/j.childyouth.2010.07.007
- Salami, S. O. (2010).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reactions to violence. *Asian Social Science, 6*(12), 101-110. doi:10.5539/ass.v6n12p101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NY: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doi:10.1037/0003-066X.55.1.5
- Shahar, B.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NY: McGraw-Hill Companies.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doi:10.1207/s15327922par0502\_3
- Toraman, C., Aktan, O., & Korkmaz, G. (2022). How can we make Students Happier at School? Parental Pressure or Support for Academic Success, Educational Stress and School Happines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Shanlax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10*(2), 92-100. doi:10.34293/education.v10i2.4546
- Uusitalo-Malmivaara, L. (2014). Happiness Decreases during Early Adolescence —A Study on 12- and 15-Year-Old Finnish Students. *Psychology, 5*, 541-555. doi:10.4236/psych.2014.56064

## ABSTRACT

### An analysis of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 of 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on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Jung, Jungkyo\*·Chung, Hyew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nd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 of three sources of social support (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in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waves 1 through 3 (1st through 3rd grade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Latent growth modeling was applied to analyze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nd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social support over the three years of the period stud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happiness appeared to decrease through the middle school years. Second, the contemporaneous effects of the three sources of social support on happiness were positively significant in each grade. In addition, significant lagged effects of parental support in the 1st grade on happiness in the 2nd and 3rd grades, parental support in the 2nd grade on happiness in the 3rd grade and peer support in 1st grade on happiness in the 2nd and 3rd grades were found. In sum,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tends to decrease as grade level increases. However,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is confirmed by revealing the contemporaneous and/or lagged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It is meaningful that it emphasized the need to make efforts in various ways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and that parental and peer support have a long-term impact as well as a short-term impact. It is suggested that additional longitudinal research on happiness and big data analysis to identify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happiness be the subject of further investigation in future studies.

**Key Words:** happiness, social support, latent growth model, contemporaneous effect, lagged effect

---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w7@cnu.ac.kr